



김 상 철 삼척소방서장님께!

지난 주 雨水之節에 찾아 온 폭설로 지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힘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이번에 내린 폭설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저희 23사단도 직접 참여하게 되어 전 장병이 보람과 지자체의 일원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평소 지자체 및 여러 기관에서 軍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지난 2.18일에 저희 사단이 '10년 통합방위 유공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유공은 사단이 홀로 잘해서가 아니라 民·官·軍·警이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설작전이 한창이던 때라서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소식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23사단이 영동지역 지킴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을 계기로 지역안보와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전력하는 것은 물론, 'Army No.1, 전투형 철벽사단'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차후 일정을 고려하여 대통령 부대표창을 기념하여 조출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민지원 및 제설작전간 저희 軍 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 2. 23

제23보병사단장 소장 이 인 태

拜上 